

# WTO 체제와 우리 양계산업의 진로

본고는 지난 24~25일 도고글로리콘도에서 열린 '95 전국 중계·부화인대회에서 이경원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WTO체제 출범 이후의 국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발췌·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 I. 서론

7년동안 꽤나 시끄러운 화제의 대상이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그 고통스러운 산고끝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태어난지도 벌써 1년반이 지났다. 1994년 4월 15일 모스코 마라케시에서 1백24개국에 참여한 가운데 출범된 WTO 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무역을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대신에 앞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어 갈 것이다. WTO의 탄생후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미 [개방과 공정]이라는 WTO 기본정신 아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느끼고 있지 않으나 WTO 시대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란 다름아닌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국경의 개념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양계분야에서의 변화를 보자면 닭고기의 경우 냉동육 이외의 것은 이미 '93년부터 개방되었으며 냉동육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양허관세 20%를 내면 수입쿼타 만큼은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97년 7월 1일부터는 관세를 30.5%로 올린 후 수입자유화 하되 2004년까지는 20%로 관세를

내리도록 약정돼 있다. 반면에 조란(액란)의 경우는 '95년 1월 1일부터 2004년까지 수입쿼타가 설정되어 30% 관세를 내고 수입하되 수입쿼타 초과물량은 45.8% 고율 관세를 내고 수입하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WTO 체제로 인한 양계업계의 변화를 말하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전에는 한국내에서 소비되는 양계산물의 전부를 국산으로 충당했으나, 이제부터는 값이 싸고 품질만 좋다면 어느나라의 양계업자가 되건 한국내에서 양계산물은 팔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양계업자 역시 어디에 가서든지 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체육대회에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국내 체육대회에서 경쟁을 하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다른나라 선수들과 겨루기를 하게 된 형국과 비유한 것이다.

## II.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성장 배경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 발전원인이 국제무역이 확대 되어온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에 농산물 특히 곡물류의 수입이 전혀 없던 시기에는 「양계산업」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미미한 존재로 농가의 앞마당에 몇마리씩 놓아 기르던 식의 「닭 기르기」가 고작이었다. 그러던 것이 값싼 외국의 곡물류가 수입되어 그 부산물들 예를들면 밀기울과 같은 것들이 사료로 쓰이고, 그후 직접 사료로 쓰이기 위해 옥수수나 대두박류가 수입되자 드디어 양계산업이라 부를 정도로 「닭 기르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농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닭은 곡물을 놓고 사람과 경쟁관계에 있다. 즉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의 곡물이 있어야 또는 닭에게 곡물을 먹일만큼 경제적 여

유가 있어야 양계업이 발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농경지에 대비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어 원천적으로 곡물부족 국가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외국의 곡물류가 아냐고 하는 우리나라는 닭에게 차례가 갈만큼 여유 있는 곡물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양계업은 외국으로부터 곡물수입이 용이해 짐에 따라 발전된 것이며, 양계업은 외국 농산물 수입의 혜택을 크게 입은 분야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입국(輸出立國)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하나인 섬유봉제업 또는 건설업 등을 시작으로 수출을 늘리어 나가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여 이나마의 소득수준과 살림살이를 늘려온 것이다. 즉 제조업 분야 또는 건설업 분야 등이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닭 모이거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어 닭고기와 계란 같은 양계산물의 소비도 촉진시켜 왔던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발전의 주요 원인은 그 원료 확보면으로나 그 산물의 시장 성장면으로 보나, 양계업 내부요인보다 양계업 외부요인에 기인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이는 결코 그동안 양계업 내부에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면으로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 온 여러 관계자들의 공헌을 평하려고 해서가 아니다. 오직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양계산업의 발전은 값싼 외국의 사료원료가 수입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팽창된 닭고기 계란 시장의 덕으로 달성된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

의 양계산업은 비교적 안정하게 급성장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것이 닭고기와 계란의 수입문호가 개방되니 전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던 외국산 닭고기·계란과의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 Ⅲ. 수입 닭고기와 계란은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

닭고기의 경우 냉동육을 제외한 전품목과 계란의 경우 액란을 제외한 전품목은 이미 개방된 바이나, UR 협상 결과에 따라 냉동 닭고기와 액란이 설정된 수입쿼타에 따라 양허관세를 내고 수입하다 2004년 이후부터는 수입이 자유화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를 열거할 필요없이 WTO 체제로 인한 변화라면 외국의 값싼 닭고기와 계란이 몰려들어 오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을 국내시장에다가 가능한 한 좋은 값에 팔아 이윤을 남기면 됐는데, 이제 외국에서 값싼 닭고기와 계란이 수입된다하니 국내시장을 잠식하며 국내에서의 값을 더 낮게 하지나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몇몇 외국의 닭고기와 계란값은 우리나라에서 보다 무척 값싸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표1에서와 같이 한국의 생산비는 미국것에 비해 닭고기는 82%, 계란은 63%나 높다.

이와 같은 생산비 차이를 보면 미국과 같은

표1. 한국과 미국의 생산비 비교

	한 국(A)	미 국(B)	A/B
닭 고 기	983.2원/kg	540원/kg	1.82
계 란	51.3원/개	31.4원/개	1.63

나라로부터 닭고기와 계란이 수입되면 우리나라의 생산비 이하로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계란의 경우는 우리나라 소비형태가 주로 신선란이기 때문에 미국의 계란값이 싸더라도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면 크게 염려될 바 아니다. 그러나 가까운 중국을 고려하면 계란도 값싼 외국 계란의 수입이 염려 안되는 바도 아니다. 닭고기의 경우는 냉동육이 수입되어 손쉽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채란업 보다 더 큰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더구나 표2에서처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닭다리값이 가슴부위와 같은 다른 부위에 비해 값이 싸다. 이런 이유때문에 수입된 닭다리는 우리 육계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표 2 닭고기의 가격 비교

	한 국(A)	미 국(B)	A/B
닭 다리	2,125원/kg	1,315원/kg	1.62
통 닭	1,771원/개	1,680원/개	1.05

표2에서 보면 통닭의 경우는 미국에서 수입되더라도 국내 통닭값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것 같으나, 닭다리의 경우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이 국산에 비해 거의 40%나 싸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속수 무책인가? 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 Ⅳ. 양계산업의 전망

WTO 체제 아래서 양계산물의 수입이 자유로워지고 생산비면에서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몇몇 외국으로부터의 양계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양계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첫째, 양계산물 특히 닭고기의 수요전망은 어느 축산물의 장래보다도 밝은 편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소비자들 이 레드 미트(Red Meat :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류의 붉은색을 띤 고기)보다 화이트 미트(White Meat : 가금류의 고기)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은 좀 긴애기가 될지 모르나 미국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결국에는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리라는 전망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시작된다. 미국인들은 50년대 초에 있었던 한국전에서 많은 전사자의 부검을 통해 미국인의 심장 및 동맥혈관 질환이 미국인들의 과다한 레드 미트 소비에 기인함을 발견한 바 있었다. 그후 맥거번 보고서에서 보는 바처럼 미국인들은 20여년의 조사연구 결과를 거쳐 국민들의 식사지침을 만들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요즘 의료진들을 포함한 식생활 상담 전문가들의 권고를 보면 닭고기를 포함한 화이트 미트가 우선적으로 단백질 식품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들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할때 우선 생선류가 있느냐라, 생선이 없으면 닭고기 그것도 기름이 많은 닭다리나 날개보다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을 주문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닭고기는 지난 몇년동안 지각있는 소비자들 이 선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심지어 양돈업자들이 자신들의 돼지고기를 홍보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또다른 화이트 미트(Another White Meat)라 주장해가며 선전을 하는것을 보면 본

래의 화이트 미트인 닭고기는 그 전망이 밝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산물 소비 수준을 보면 아직도 그 성장의 여지가 너무도 크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식생활형태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예를 보면 표3에서 보는바와 같다. 즉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닭고기에서는 2.4배, 계란에서는 1.8배나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아직도 상당량의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를 뒷바침하듯 농경연에서도 1984년의 118,000톤에서 1994년의 243,000톤으로 늘어난 닭고기의 소비량은 2001년에 320,000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은 수입되는 외국산 양계산물에 의해 현재 규모의 시장이 잠식 당할까를 염려하기 보다, 이 늘어나는 시장을 어느 나라의 양계업자 보다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양계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차지 할수 있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양계산업의 전망은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니다.

표 3. 양계산물 소비량의 한·일간 비교

	일본(91년 A)	한국(B)	A/B
닭고기	13kg/1인	5.49kg/1인	2.4
계란	326원/1인	181개/1인	1.8

셋째,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나라 양계인들은 어느 나라 양계인 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고 그들을 제일 잘 알만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도 점차 늘

어나는 맛벌이 부부들 때문에 그리고 식생활 양식의 변화 때문에, 외식이 늘어나고 간편한 식사준비를 필요로 한다. 예를들면 간편하게 아침에 그냥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아침식사 제품, 저녁이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즉석 조리용(Ready to Cook) 제품 등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경향은 외국에서도 일어났고 현재도 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입에 맞는 제품을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양계산업 보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종사자들이다. 이때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서구 사회의 것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의 개발 보급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뿐 아니다. 양계산물을 우리보다 많이 소비하고 국내 생산이 부족해 많은양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옆에 있다. 표1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계 생산비는 물론 미국 보다는 높다. 그러나 일본 보다는 낮다. 그런데다 일본인들의 소비자 선호도를 미국인들 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아낼 수도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시장의 확보는 물론 일본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갖어야겠다.

**표 4 양계산물 생산비의 한·일간의 비교**

	일 본(A)	한 국(B)	A/B
닭 고 기	1,491.1	983.2	1.5
계 란	99.2	51.3	1.9

물론 수입문호의 개방은 우리 양계산업이 당면한 큰 도전이다. 그러나 양계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의 양계산업이 외국 양계산업의 도전을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여 체질강화, 효율성 제고,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 이 긍정적인 시장전망의 기회를 포착하여 우리것으로 만든다면, 시장개방은 하나의 전화위복이 될것이다.

## V. 수입문호 개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앞에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성장은 주로 양계산업 외적요인에 힘입어 어찌보면 안이하게 성장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값싼 외국의 양계산물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양계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의 능력이 그만큼 있음을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분명 양계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이 새로운 장은 우리모두에게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축산업 육성]을 10대 농어촌발전대책 중의 하나로 삼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의 향상을 멋진 구호를 내걸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국가의 어느 한 산업의 대외경쟁력은 국내에서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국내에서 많은 연습과 경기를 치른 운동선수가 국제경기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력이 양성되도록 해야겠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업 농가와 양계단지 조성을 위해 농기당 3억원이내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원은 어디까지나 효율적 경영을 통해 자구적 노력을 하는 농가에 부차적 도움이 될뿐이지 궁극적 해결책은 농가와 산업 자체의 노력에서 찾아져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각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들이 못하게 말리어도 본인이 그 하는일을 너무도 좋아해 계속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성화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열의가 없이는 실패하는 예를 많이 봐오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에서도 스스로의 노력이 성공의 열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둘째,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안정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실 안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어 바람직하게도 생각된다. 그러나 안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하여 산업을 비능률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일찌기 프랭크 나이트(Knight)교수는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즉 "이윤이란 위험부담에 대한 댓가이다"라고. 어느 산업분야에서든지 안정적인 이윤이 언제나 보장되지만 한다면 너도 나도 그 산업에 뛰어들어 공급과잉이 있게 되고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이윤은 사라지고 오히려 손해까지 보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어느업이 수지가 맞는다 할 때 기득권이 있는 업체 몫이 국내산업 보호 또

는 과당경쟁 금지라는 이유등을 핑계로 정부의 인허가 제도를 강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해 이윤을 유지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면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뒤지게 되고 만다. 이런 관점에서 흔히들 거론하는 [가격의 안정화]란 명제를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수지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손해 볼 가능성을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윤이 어떤때에 당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메워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손해를 볼 때 손해를 최소화 하려 경영쇄신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탈락하여 나가기 때문에 전체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의미에서 가격의 등락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생리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상식적으로도 「값과 품질로 승부를 건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한번 더 음미하고 「값은 싸게 품질은 좋게」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누가 애써 생산한 것을 싼값에 팔고 싶겠는가. 그러나 외국에서 싼값에 밀고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이겨 낸다는 말인가. 일단 가격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방패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혹시 토종 닭이니, 특수란이니, 자연방사한 닭고기니 계란이니 하여 부분적으로 수입닭고기와 계란을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거리는 되어도 전반적인 산업의 성공담이 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대세로서 가격경쟁에 밀려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우리 옛말에 "사촌형수 떡도 값이

싸야 사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고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넷째, 아무리 바람직한 협동과 계열화도 개개 참여자들에게 이득이 있을 때 하게 된다는 점을 재인식해야겠다. 자칫 외국에서 하니까, 또는 계열화해야 한다니까 하는 접근보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음으로 해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더구나 계열화가 우리나라 양계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만능약인 듯한 생각이 라던가, 계열화를 위한 계열화에서는 벗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열화가 이뤄져야겠다.

그리고 그것도 업계의 관련된 업자들이 자발적 필요성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계열화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돼야지, 계열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다섯째, 양계인들 스스로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양계를 시작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당시로서는 스스로 잘살아 보기 위해 각개인 형편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지, 정부가 하라고 해서 또는 하느님으로부터 양계만을 하고 살라고 운명지어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도 어느 누구라도 양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 둘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대기업의 축산참여 금지를 했다던가 또는 사육두수를 규제하는 등의 과오를 저지른 적도 있었다. 사실 양계업은 생

명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누구보다도 낮은 비용에 닭고기나 계란을 생산해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육규모도 그 규모 경제의 크기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일이지 어느 규모 크기가 경제적 규모이다 라고 인위적으로 정해서도 안되고 정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양계업에도 어느 산업에서나처럼 진입출(進入出)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힘에 의해 그 경제적 규모도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과 경쟁이 보장되면 경제적 규모가 아닌 지나치게 적은 규모나 또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농가는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탈락해 나가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규모의 농가가 양계산업에 자리를 잡아 가게 될 것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안하는 것도 중요한 할일 중의 하나이다. 예를들면 축사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및 기타 허가제도의 완화, 또는 발효 건조된 계분비료 생산 판매에 관해 비료공장 허가 요건의 완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안하던 것을 새로이 한다거나 해오던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닭고기 및 계란의 위생상태 감시감독,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과 조치, 양계산물의 등급제의 도입시행, 양계관련 기초과학 연구지원, 양계산물 관련 물류 및 사회 간접자원의 개설 등에 관련된 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양계산업에 관련된 사료산업(사료

비용이 축생산비중 육계의 경우 57%, 산란계의 경우 63% 차지)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등 할일이 많다. 그리고 사료산업과 그 관련업(예 : 대두박업)에서 존재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의 불식이라던가, 계열화 기업에서는 잘 노출되는 세원(稅源)에 대해 세율의 하향조정 같은 것을 심각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들이 외국으로부터의 도전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를 위해 지난 70년대 미국의 자동차업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당시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값싸고 질좋은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해 들어오자 상당한 위협을 느끼었다. 미국인들은 자동차 생산 선진국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일제 자동차를 분해해 가면서까지 왜 소비자들이 일제차를 좋아하는가를 자체분석하기까지도 했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19세기말에 미국 남부지역의 표토유실 방지와 사방공사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던 칩덩쿨(Kudzu Vine)이 너무 번성해 그 지역 산림의 나무들을 고사 내지 못살게 굴자, 마치 이처럼 일제차가 미국 자동차업계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감정적 반응이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의 주된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기 바란다. 일본 친구들이여 고맙다. 우리는 당신들의 도전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과연 그동안 미국차는 많이 개선되어 결합율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양계업 역시 이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봄이 어떨까 한다.

## Ⅵ. 결 론

양계산업 앞에 다가오고 있는 파고는 넘을 수 있고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한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에 거론된 몇가지점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하나 풀어가야겠다. 이때 한가지 생각나는 닭에 관한 다음의 예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닭을 들에 놓아 기를 때 알을 잘 낳는 닭의 공통된 특징 세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 하나는 아침에 제일 일찍 횃대에서 내려왔다 저녁에 제일 늦게 횃대에 오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톱이 제일 많이 닳아 있고, 셋째는 머리 위의 깃털이 제일 많이 벗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제일 부지런하니 제일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알도 제일 잘 낳는다는 말이다.

이런 닭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겠다. 복잡한 경제이론과 경영원리를 논하기 보다 앞의 암탉이 암시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이다. 「一日之計는 在於寅」이라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나, 勤無價寶(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한 보배)라는 문자를 들어가며 부지런하라는 말보다 암탉의 예기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크다.

분명 우리 양돈산업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길을 가다 앞에 돌이 나타나면 실패하는 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 하고, 성공하는 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는 토마스 카알라일의 말을 음미하며 이 도전을 딛고 한 단계 뛰어 올라가야겠다. 양계